

전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내용 주민들에 설명

전주시, 주민 공청회 개최
동지내몰립 현상 유발
가로공간 개선사업 비중 ↓
지속가능성 중심 계획 수정

전주시는 27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원도심에서 전통 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소영식 도시재생활성화지원센터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의 주

재로 한인구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장,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등 도시재생전문가와 시민대표로 참석한 박영근 전북중소상공인연합회장이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또, 일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를 목표로 전주시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3개동 일부(1.43km)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지단 및 재생여건 분석을 통해 지난 2017년 3월에 수립·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발견된 계획의 문제점 등을 수정·보완하고, 변화된 도시재생 여건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동지내몰립(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경제·문화적재정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 전주시민들이 문화활동, 사회경제적활동, 공동체활동, 교육활동 등을 원도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와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을 진행하고,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토론내용과 시민이 주신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7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야호 전주' 학교가 아이들의 예술 놀이터로

전주시, '아이 조아 예술학교' 운영... 첫 일정으로
전주교대 부설초 학생들 등과 3개월동안 제작 돌입

전주시가 어린이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야호! 아이 조아 예술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야호! 아이 조아 예술학교'는 어린이가 학교 인근 마을 예술가와 청년작가 등과 함께 예술작품을 제작해 학교와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교주변 마을 등에 전시함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시는 전주부설초를 시작으로 인근 서화동 예술마을을 주무대로 활동 중인 중견작가, 청년작가(전북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등과 협업해 미술작품 제작에 나선다. 프로젝트의 방식은, 초등학생들은 희망하는 작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청년작가와 중견작가가 작품 제작을 맡는다. 또, 중견작가는 참여한 청년작가의 멘토 역할도 수행, 3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학교 주변에 작품을 설치한다.

시는 예술학교가 운영되면 어린이들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예술적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학교에 초점을 설치할 수혜대상인 어린이, 서화동 예술마을의 예술가, 지역 대학생, 행정이 함께 손을 잡은 첫 번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교육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예술가와 지역 대학생 등 우수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풍수해보험 담당자 실무 교육

전주시가 시민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사유재산 피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 관리제도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시민이 부담해야할 전체 보험료의 52.5%~86.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 시 주택이나 온실이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시청·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도 상담이 가능하다. 서영문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있어 행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면서 "풍수해보험이 사유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재향군인회 '명량대첩' 지역 현장 견학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채정수), 향군회원 130여명은 임진왜란시 대승을 거뒀던 명량대첩지 전남 해남군 '우수영 국민관광지'를 안보현장을 견학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정수 회장은 또다시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 어려움을 받고있는 이때, "이번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임진왜란시 이순신장군의 열악한 상황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했던 지킨 자라과 용맹스러움을 상기하고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하는 항군회원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명량대첩은 일본 수군을 명량(울돌목)지역으로 유인하여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조선의 압승으로 명량대첩은 한산대첩과 더불어 사상 최고의 해전으로 꼽힌다. /김영태 기자

관상동맥우회술 적성성 '1등급'

전북대병원, 심평원 평가 결과 최고등급 획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제5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에 충분한 가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경제·문화적재정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 전주시민들이 문화활동, 사회경제적활동, 공동체활동, 교육활동 등을 원도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와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을 진행하고,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심평원에서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5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346곳의 의료가

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의 주요 항목은 ▲수술전술 ▲수술시 내흉동맥을 사용하는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중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후 사망률(30일 내)과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중으로 인한 재수술률 0% 등 전 부문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심장수술을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관상동맥우회술은 많은 경험과 노력한 숙련도가 필요한 수술로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의료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다"며, "고난도의 증증 질환 치료에 역량을 집중해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제5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에 충분한 가로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경제·문화적재정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 전주시민들이 문화활동, 사회경제적활동, 공동체활동, 교육활동 등을 원도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와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을 진행하고,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주금암고 폐교사 정비

건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덕진구, 부지정비 등 추진

폐교 후 방치돼 있는 금암고(구 숭실고등공민학교)의 건물과 부지가 정비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엽)는 이 건물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해 '금암고 폐교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암고는 1956년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해 1986년 당시 문교부로부터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학력인정을 받아 운영했다. 지난 2010년 폐교해 10년 가까이 비어있다. 이 학교는 처음 설립당시 한국전쟁 직후 전경고아 등 문맹율이 높았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 왔던 전주시 교육역사의 현장으로, 그동안 형편이 어려웠던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거쳐 배움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덕진구는 파손된 학교 담장을 보수하는 등 응급복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해 왔다.

구는 금암고 폐교사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최근 관련 회의를 거쳐 금암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설립자의 후손은 "학교건물을 무차별 철거해 버리면 이곳이 전주지역 대안교육의 산실이 있다는 역사 자체가 소실되어 버리면 건물 일부라도 보존해 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고액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적극 활용

전주시 덕진구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덕진구(구청장 김중엽)는 오는 9월까지 징수 목표액 30억원을 설정하고, 2019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반을 구성·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소유 임무부동산 공개 추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 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일례로, 체납액 3000

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9월 17일에는 체납자 3만2750명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이미 결산처분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중엽 덕진구청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다"면서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주민 분들께서도 지방세에 충동원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일례로, 체납액 3000



예수병원, 손위생 우수부서 포상

예수병원은 미생물의 주된 전파원인 손을 통한 감염예방을 위해 환자관리 영역에서 의료진의 손 위생이 요구되는 상황과 올바른 방법을 통한 수행률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손 씻기 수행률 모니터링과 우수부서 시상하고 있다.

예수병원 감염관리실의 상반기 손 씻기 수행률 모니터링 결과에서 1분기 우수부서로 34병동, 95병동이 선정됐으며, 2분기 우수부서로 인공신장실, 내시경센터가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시상했다.

예수병원 감염관리실은 감염예방의 기본 원칙인 손 위생 수행률 향상을 위한 손 위생 증진활동으로 손 위생 규정이 손 위생 수행률을 모니터링하여 평가 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와 점접이 이루어지는 행위마다 적절한 손 위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고 결과는 원내 모세 계시판 게재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병원감염 예방 및 다제내성균 전파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간호부 병원 발전기금 3689만원 후원

예수병원 간호부(부장 이순복) 간호사회에서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3689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간호부 김희진 광고사회 회장은 27일 아침 직원 예배시간에 전체 간호사들의 정성이 담긴 발전기금 3,689만원을 김철승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환자 제일주의를 일선에서 실천하며 환자 경험중심의 예수병원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부 간호사회에서 콜센터 구축을 위해 한 분 한 분 뜻으로 모금하신 후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예수병원 간호사회 임원회는 "올해 송년회와 가을소풍 경비를 절약해 예수병원에서 추진 중인 콜센터 구축 사업에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이건우 전 사회사업과장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

이건우 전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장이 예수병원 발전기금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에서 22년간 근무하고 1996년에 정년퇴직을 한 이건우 전 과장은 지난 26일 예수병원을 찾아, 김철승 병원장에게 예수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전 과장은 "정년퇴직은 했지만 예수병원을 생각하며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을 위해 검소하게 조금씩 모아 이렇게 후원하게 됐다"며, "재직 당시 설대위 원장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존경하는 이건우 전 과장님의 변함없는 예수병원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